

# 이호철의 『소시민』에서 ‘제사’ 모티프의 의미

안용희 \*

## I. 서론

이호철(李浩哲; 1932~)의 『소시민(小市民)』은 1964년 7월부터 이듬해 8월 까지 『세대(世代)』지에 연재되었으며 이후 작가에 의한 두 번의 수정작업(1972년, 1979년)을 거쳐 1979년 강미(康美)문화사에서 ‘결정본(決定本)’으로 출간되었다.<sup>1)</sup> 이 소설은 월남민 ‘나’가 1951년 늦봄부터 1952년 여름 군에 입대하기까지 부산 완월동의 한 제면소(製麵所)에서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인한 한 시대의 붕괴 과정 및 그 상황 속에서 인간 개성의 마멸 양상<sup>2)</sup>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기 삶의 뿌리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형상”<sup>3)</sup>과 “1960년대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일상의 출발으로서 1950년대”<sup>4)</sup>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전자의 관심이 주로 소재적 측면에 기울어져 있다면 후자의 시각은 작품의 서술이 진행되는 시간축과 서사가 진행되는 시간축이 분리되

\* 흥익대학교 강사

1) 결정본이란 작가가 직접 사용한 용어이다. 본 논의에서는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 8』(신구문화사, 1966)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결정본의 경우에는 이호철, 『소시민/심천도』(새미, 2001)를 참고하였다.

2) 천이두, 「목계와 배신-이호철론」, 『문학춘추』, 1965. 2, 72면

3) 권영민, 「닫힘과 열림의 변증법」, 『문학사상』, 1989. 5, 104면

4) 이호규, 「분단 현실과 소시민」, 이호규 외, 『이호철 소설 연구』, 새미, 2001, 52면

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작품의 의의를 특정 시기와 연관짓지 않고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의의를 지닌다.<sup>5)</sup>

이러한 논의들 가운데 본고가 주목하는 것들은 정호웅, 강진호, 구재진의 연구<sup>6)</sup>이다. 『소시민』에 대한 대부분 논의가 이 작품을 삽화적이고 나열적인 세태소설로 규정한 데 반해 작품의 서사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를 발전시킨 정호웅은 작품 내 등장인물들의 전략-상승 구조와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세대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쌍의 전략-상승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결말의 낙관적 전망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강진호는 『소시민』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고 이를 분석하면서 화자 ‘나’의 성격 및 작품의 개작과정에 주목하는 등 이전의 논의들과 구별되는 독창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그의 논의가 이전의 것들과 뚜렷한 변별성을 띠는 지점은 화자 ‘나’의 성격 및 작품의 정치적 사건과 관련성, 그리고 개작과정에 주목한 부분이다. 더욱이 연재 당시의 내용과 이후 ‘결정본’으로 출간된 내용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그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구재진은 작품의 서술 양상을 감상과 조망이라는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함으로써 작품의 서사 구조가 지니는 의미를 올바로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었다. 또한 작중인물인 ‘강영감’과 ‘정옥’의 죽음이 서사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심화된 작품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이상 세 연구자의 논의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서사 구조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소시민』의 낙관적 전망을 인

5) 최원식은 이러한 관점에서 『소시민』을 “6·25가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적 재편에 어떻게 기능했는지 예각적으로 포착한 뛰어난 문학적 보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원식, 「1960년대의 세태소설-소시민과 심천도」, 『이호철 전집 6』, 청계연구소, 1989, 위의 책 229면 재인용.

6) 정호웅,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문학정신』, 1992, 7.  
강진호, 「이호철의 ‘소시민’ 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민족문화사연구』 11집, 민족문화사 연구소, 1997. 천이두 외,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재수록.

구재진, 「한국적 근대의 비동일성에 대한 소설적 성찰」, 이호규 외, 위의 책.

정하는 가운데 등장인물들의 죽음과 사회 현실이 관련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작품의 기본 서사 전개양상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제사' 모티프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제사가 지니는 공동체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 작품의 결말이 완결된 형식이 아닌, 열린 형태로 제시되는 이유도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 II. '소시민 의식' 논쟁과 한국전쟁

1950년대 이후 한국 문학을 논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건인 한국전쟁은 『소시민』에서도 작품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결코 정지된 특정 시기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해방공간이, 그리고 그 뒤로는 본격적인 근대화가 위치한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때 이 작품을 특정한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한정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작품의 의미를 축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제목에 쓰이기도 한 '소시민'의 개념이다. 사회학의 관점에서 소시민은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중산층과 달리 근대사회의 역사적 변동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다.<sup>7)</sup> 현재까지도 한국의 근대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때 이러한 '소시민' 개념은 어느 정도 유용해 보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 말 '소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펼쳐진 문학계의 논의는 이러한 개념 적용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김주연이 「새시대 문학의 성립」<sup>8)</sup>을 통해 김승옥, 박태순, 서정인, 이청준

7) 중산층이 사회의 상층과 하층의 양극화 과정에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매개 집단의 성격을 지닌다면 스스로의 자본을 소유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격리되고 스스로 노동한다는 점에서 자본가와도 유리되는 소시민 계층은 사회적 변화를 방해할 수도 있고 그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변동과 깊이 연관된 개념이다. 소시민층과 중산층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민호, 『근대독일사회와 소시민층』, 일조각, 1992, 1-23면 참고.

8)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 『아세아』, 1969. 창간호, 253-267면.

등이 펼친 60년대 문학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벌어진 ‘소시민 의식’에 대한 논쟁은 이후 김현, 김치수, 백낙청 등이 가세하면서 ‘시민문학론’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논쟁에서 핵심이 된 것은 김승옥 등 60년대 문학이 보여준 문학적 성과가 시민문학으로 발전하는 긍정적 원동력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김치수가 소시민 의식을 소시민 근성과 구분지으면서 “시민이 자신의 안이한 생활과 소시민적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때 그것은 「소시민 근성」이 되고, 소시민적 위치에 대해서 자각하였을 때 그것은 「소시민 의식」이 된다”<sup>9)</sup>고 주장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이때 소시민은 시민과 다른 별개의 계층이라기보다는 시민 계층의 부정적 일면을 드러내는 용어로 쓰인 것이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이들의 논의를 부정한 백낙청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소시민을 “시민계급의 일원이면서도 시민의 제반 지배적 결정에는 참여 못하고 그런데도 자신이 지배계급의 구성원이요 자립자족적인 시민이라는 환상을 끝내 고집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자가당착적 처지와 자기이해의 결핍 때문에 극도로 무책임한 개인주의와 극도로 감정적인 집단주의 사이를 무정견하게 방황하면서 해소할 길 없는 원한과 혀무감과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시민들”<sup>10)</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실상 김치수가 말한 ‘소시민 근성’과 상통하는 개념 정의인 것이다. 특히 작가 이호철이 소시민에 대해 “갑자기 뿌리뽑힌 뜨내기 인생”<sup>11)</sup>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고의 대상이 되는 『소시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소시민 근성’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역사적 변혁 주체로서의 사회학적 정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sup>12)</sup> 그럼에도 이 작품

9) 김치수, 「백낙청의 「시민문학론」과 문학의 사회참여」, 『세대』, 1969. 12, 160면.  
김주연, 「개승의 문학적 인식」(『월간문학』, 1969. 8)에서도 소시민 의식에 대해 이와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10)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 6.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13면 재인용.

11) 이호철은 한 대담에서 이 작품의 제목인 ‘소시민’의 의미에 대해 “갑자기 뿌리뽑힌 뜨내기 인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호웅, 「단독자의 삶과 문학」, 『계간 문예』, 1993. 1. 정호웅,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재수록.

12) 1955년과 1960년 한국사회의 계급 구성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학적 용어에 해당하는 시민과 소시민은 각각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1%, 14.5%에 머무르

이 1960년대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작품의 서술이 진행되는 시간축과 서사가 진행되는 시간축이 분리됨으로써 이 작품이 단순히 세태소설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문학론’과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sup>13)</sup> 그리고 이 지점에서 『소시민』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시간적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더욱이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51, 2년의 부산은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밀집했던 곳으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정권 반대 세력을 무력화(無力化)하고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한국 정치사를 왜곡시킨 곳이 바로 피난지 부산이었고<sup>14)</sup>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군의 원조 물자와 전시라는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시 부산을 배경으로 한 경제는 정상적인 발전 경로를 이탈하며 이후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 이때 새롭게 떠오른 계층이 바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의 견고함을 의식하고 이에 재빠르게 적응한 소시민이다. 실상 전시 부산이란 배경은 월남민이자 실향민인 이호철 자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당시의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뽑힌 존재로서 소시민이란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1951년은 작가 자신이 바로 전해(1950년)에 단신 월남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정착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시민성의 극복은 이호철 자신에게도 커다란 과제였으며, 이러한 고민이 10년 이상의 시간적 거리와 사회 변화에 대한 관찰을 통해 체험담이 아닌 소설로 형상화된 것이 『소시민』이다. 이런

고 있어 1950년대 한국사회에는 소시민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만한 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공제욱, 「1950년대 한국사회와 계급 구성」,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71면.

13) 이에 대해서는 1960년대 문학을 응호하는 평가와 부정하는 평가 모두 이호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소시민의 성격을 1950년대 상황에만 고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 256면 및 백낙청, 앞의 글 62-63면 참고.

14) 이승만 정권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백골단, 땃벌떼 등의 관변단체를 동원해 ‘국회 의원 소환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를 배제하기 위해 국민투표민주주의를 적극 활용했다. 박명림, 「한국전쟁과 한국정치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59-121면.

점에서 『소시민』의 1951년 부산이란 배경은 사회 현실로서 소시민의 문제와 작가 자신의 고민으로서 부정적 소시민성 극복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전망은 개인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의미에까지 잇닿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무게를 떠올릴 때 작품에 대한 분석 역시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작품 분석을 위해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제사’ 모티프이다. 개인의 생을 완결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 의식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제사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본고의 전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서사 전개 양상의 이면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제사’ 모티프가 주제형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라이트모티프(leitmotiv)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본고의 주된 논의가 될 것이다. 또한 ‘제사’ 모티프에 대한 분석은 지금까지 논의들이 1964, 5년이라는 창작 시기와 1951, 2년이라는 작품의 배경에 부여했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줄 것이다.

### III. 인물의 죽음과 사회 변화의 대응 양상

『소시민』의 기본적 서사를 이끄는 인물들은 정씨, 강영감, 정씨의 누이 정옥, 천안 색시의 남편, 괴씨 등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인물, 혹은 그에 동조하는 인물들과 이와 대비되는 김씨, 강영감의 마누라와 딸 매리, 천안 색시, 고향사람 등 사회적으로 상승하는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몰락하고 상승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모두 급변하는 사회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뿌리 뽑힌 존재들이라는 점에서는 소시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씨로 대표되는 인물들의 몰락이 작중에서 모두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sup>15)</sup> 강영감의 죽음이 인물들의 변화가 전개되는 첫머

---

15) 강영감, 천안 색시의 남편, 정옥, 그리고 괴씨의 죽음이 서사적 시간축에서 서술되고 있고 정씨의 죽음도 작품의 결말 부분에서 정씨의 아들을 통해 확인된다.

리에 놓이고 천안색시 남편의 죽음으로 김씨와 천안 색시의 면모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과씨의 죽음으로 완월동 제면소 시대가 마감된다. 마침내 정씨의 죽음으로 인물들의 몰락이 완결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죽음은 작품의 서사를 분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앞 시대의 이념적 동조자였던 정옥의 죽음은 한 시대의 통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일제시대 동경 일교대학을 졸업하고 사상운동에도 뛰어들었던 지식인인 강영감의 죽음이 등장한다. 이것은 강영감이 대표하는 이념적 인간이 그의 마누라처럼 생활력이 강한 소시민에 패배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인 동시에 이념적으로 동지 관계였던 정씨와 김씨의 분화를 예고하기도 한다. 정씨는 투전판에서 주인과 한편이 되는 과씨에게 모멸적 시선을 보낼 정도로 여전히 이념에 사고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런 태도는 제사 기간 중 잇속을 챙기는 김씨에 비한다면 누구나 알아챌 정도의 “얕은 속”으로 제사 준비를 거드는 과씨의 허위적 행태와 마찬가지로 “어림도 없이 허술한 것”이다.

천안 색시의 남편도 혼란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는 농업학교를 졸업했으며 땅마지기나 있었던 집안의 자손으로 작품 후반부에 ‘도회지’ 여자가 되는 천안 색시와 몰락과 상승의 한 쌍을 이루면서 ‘천안’으로 표상되는 ‘촌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다. 그의 죽음 이후 천안 색시와 함께 살게 된 김씨는 강한 생활력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가지만 정씨와 과씨는 점점 왜소해져 가는 등 제면소의 인물 내에서도 몰락과 상승의 대비가 심화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씨와 김씨의 대립은 표면화되지 않는다.

정옥의 등장과 죽음은 작품의 서사 구조에서 커다란 분수령 역할을 한다. 몰락하는 인물들에게 동조하는 인물인 정옥은 “역겨운 세상과 살아가기 힘든 역겨운 하루하루를 빨아들여 정화시킬 듯한” 외모와 함께 “읍거리의 술집” 같은 직절함도 지니는 등 이상적 여인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바람과 햇빛이 해야 할 창에 예수 어머니의 그림이 걸려 있고 천장도 없이 서까래가 높은 정옥의 방에 대한 묘사는 그녀의 외모에서 풍기는 신비감과

함께 그녀의 방에 신성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이런 점에서 이 공간에서 정옥과 만난 ‘나’가 “온몸에 웬 열이 나”고 “느닷없이 코피가 터지는” 현상은 정화의 체험에 가깝다.<sup>16)</sup> 정옥의 방을 나선 ‘나’가 “신비스러운 위엄”을 발산할 정도로 정옥과 그녀가 차지하는 공간의 신성함은 막대하지만 정옥이 “그 바닥의 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몰락하는 인물들을 위한 순교자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예견된 것이다.

정옥과 ‘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다른 한편에서는 김씨가 “정씨를 경멸 하”며 정치판에 뛰어들고 고향사람은 장사판에 뛰어들어 이익을 챙기는 등 인물간의 분화가 본격화되며 정옥의 죽음 이후에는 정씨 등 인물군의 몰락과 천안 색시, 김씨, 고향사람의 변모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

정옥의 죽음이 스토리 전개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이 사건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구분하도록 배열한 내용 구성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나’의 꿈을 통해 정옥의 죽음을 암시하고 정옥의 죽음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23장에서 26장까지 네 장을 차지한다면 그 앞의 스물두 장(1장~22장) 중 인물 및 배경을 소개하고 강영감의 죽음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앞의 일곱 장(1장~7장)은 발단 부분을 이룬다. 또한 후반부의 열아홉 장(27장~45장) 중 마지막 세 장(43장~45장)이 결말과 후일담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옥의 죽음은 전반부 열다섯 장(8장~22장)과 후반부 열여섯 장(27장~45장)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작중에서 차지하는 인물의 비중에 비해 과씨의 죽음은 작품의 결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소지주 계층 출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소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던 과씨의 죽음이 ‘나’의 입대로 이어지며 완월동 제면소라는 ‘수령’에서 머무르던 인물들의 분화가 완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씨의 죽음과 ‘나’의 입대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들은 서사의 의미보다는 후일담의 성격이 짙다. 즉, 김씨와 고향 사람이 이승만 지지 데모에 참가하고 고향 사람은 결혼을 통해 완전히 정착하는 등 김씨 등 인물들의

16) ‘피’란 화생과 관련되어 성스러운 합법성, 고통스러운 자기 진정에 영향을 주는 능력과 관련되는 내적 양심을 상징하며, ‘신체의 열’은 생명과 건강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승훈,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234면 및 506면.

상승과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는 정씨의 몰락은 인물들의 죽음을 바탕으로 한 기본 서사의 측면에서 보면 결말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정씨 아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정씨의 죽음도 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기보다 정씨 등의 인물군의 몰락을 완결 짓는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이 작품은 정옥의 죽음을 정점으로 한 여러 인물들의 죽음이 여타의 사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기본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사회 변화의 양상을 논평 형식으로 서술하는 부분과 교차적으로 대옹시킴으로써 완월동 제면소라는 공간의 사건들이 결국 사회 변화의 축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강영감의 제사 장면이 7장에서 서술된 후 8장의 서두에서는 미국의 원조 물자가 쏟아지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어차피 사회 전체의 격동 속에서는 종래의 형태로 있던 사회 각 계층의 단위는 그 단위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모든 계층이 한 수령 속에 잠겨서 격한 소용돌이 속에 휘어들어 타류를 이루게 마련이었다. 미국의 잉여 물자는 한국의 전쟁판에 그대로 쏟아 부어지고 그런 속에서 미국의 실업계는 새로운 숨을 쉬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전란은 한국의 강토를 폐허시키고는 있었지만 어느 모로는 전란에 매달려 나머지 한국민은 그날그날의 삶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었다. 모든 물줄기는 부산과 일선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두 곳이 다 상반되는 소모 속에 열을 뿜고 있었다. (42면)

미국의 잉여 물자가 흘러들며 새롭게 전개될 사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 서술에는 어떠한 인물의 감정도 배제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화자 '나'의 서술이 대화와 행동,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감정 제시를 통해 이루어지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러한 서술 양상은 천안색시 남편과 정옥의 죽음 이후에도 뚜렷하다.

반면 곽씨의 죽음 이후에 사회 상황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은 색다른데 새로운 시대의 소시민층이 우경화되는 현장이 논평의 형식이 아닌, 하나의 목격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 현실과 사회 현실이 교차적으로 서술되던 양상과는 달리 개인 현실과 사회 현실이 마주치고 있어 실상 이 대목에서 1950년대의 시간축에서 이루어지던 서사구조가 완결됨을 알리는

한편, 이후 개인 현실은 사회 현실의 증언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하게 될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구조 분석에 따라서 인물의 죽음과 사회 상황에 대한 서술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이 작품의 서사 구조는 ‘강영감의 죽음 - 미국 원조 물자의 도래와 사회 변화의 시작 - 천안 색시 남편의 죽음 - 거창사건으로 삼부장관 사임, 자유당 전신인 공화민정회 발족 - 정옥의 죽음 - 부산 자유시장의 폭발적인 비대와 부산 정계의 전면적 변질 - 과씨의 죽음 -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모대의 행진 - 정씨의 죽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상의 전개를 보여주는 서사 구조의 또 다른 충위를 인물의 죽음이라는 서사 구조와 분리하면 인물들의 몰락과는 대조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변질된 자본주의의 강화, 즉 근대화의 왜곡이 심화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정씨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몰락과 대비를 이루는 김씨 등의 인물들의 상승은 사회 현실에서는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이승만 정권과 자본주의가 견고해지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는 전후 한국 사회의 전면에 등장했던 소시민 계층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몰락하는 인물군인 이념적 지식인(강영감, 정씨), 농촌 지주 계층(천안색시 남편, 과씨)과 달리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해 간 강영감 미누라, 김씨, 천안색시, 고향 사람은 어떤 믿음이나 뿌리에 집착하기보다 변해가는 현실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뿌리가 없는 뜨내기 인생으로서 소시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sup>18)</sup> 이로써 60년대 시민문학론에서 대상이 되는 소시민의 성격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기도 하는데 이때의 소시민이란 이처럼 1950년대 사회 변동 과정에서 시류에 영합하여 사회적으로 상승한 인물들로 이는 명백히 극복해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시민』에서는 그 극복을 ‘제사’ 모티프를 통해 암시하고 있다.

17) 지금까지 사회상황의 축과 인물이 겪는 사건의 축을 구분하여 논의한 글들은 모두 이를 도식적으로 구분하기만 하고 그 의미를 밝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이 작품의 세태소설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였다.

18) 이는 50년대 이후 경제의 전면에 등장하는 여성인력과 산업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농촌(농업) 대 도시(상업)의 대결구도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 IV. 세대교체의 상징으로서 ‘제사’ 모티프

개별적인 인간의 일생에서 제사란 탄생 이후의 삶이 끝난다는 점에서 생을 완결 짓는 의식이지만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이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망자의 사후 세계에서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영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이외에도 공동체에 정신적 위안을 주는 행위이며 넓게 보아서는 한 개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의식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인 장례 의식에서 망자의 친·인척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망자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행위는 제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 세대의 구성원들이 망자의 일생을 논한다는 것은 앞 세대의 교훈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벌어지던 빈 상여놀이는 사별의 슬픔과 고통을 웃음과 신명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에서 산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명의지를 불어넣는 행위인 것이다.<sup>19)</sup>

이러한 공동체 의식으로서 제사는 『소시민』에서는 강영감의 제사로부터 시작해 천안 색시 남편의 한풀이 굿, 괴씨의 제사에 걸쳐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다. 특히 모든 인물들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디는 점은 이 작품에서 인물의 죽음과 그 처리방식이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완월동 제면소의 인물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혹은 횡횡한 공간을 뛰어넘을” 강영감의 저승길을 위해 강영감의 입에 난알을 차곡차곡 넣어주기도 하고 투전판을 벌이다가도 “전원이 사이좋게 엉거주춤히 일어서서 죽은 강영감의 그 초라한 외투 차림의 사진을 건너다 보면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기도 하며 “흡사 죽은 괴씨를 두고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무슨 놀음이나 하듯 장난스러운 것이 감돌”다가도 모두가

19) 상례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는 임재해, 『전통 상례』, 대원사, 1990 참고.

소리를 질러 곡을 하는 모습은 흥겨움과 슬픔이 함께 하는 전통적인 제사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긴 고깔모자를 쓴 중년” 무당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고 춤을 추”는 모습을 구경하며 “둘러선 아낙네들도 제각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혹은 눈물을 후벼내”는 한풀이 궂에 대한 묘사도 공동체 의식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준다.<sup>20)</sup>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곡소리를 하고 입관 의식을 지켜보는 것은 망자의 죽음을 공동체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임을 재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강영감의 제사에서 “그 가지가지 목소리는 한데 어울려 들지를 못하고 흡사 소리의 전시장처럼 저저끔 제 목소리를 고집하고 있는 듯”한 소리로나마 완월동 제면소의 인물들이 곡소리를 함께 하고 있는 장면은 지나간 세대의 죽음을 공동체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꽈씨의 제사가 사진도 없고 굳이 자정이라는 제사 시간을 지킬 필요도 없이 치러지는 등 좀더 격식에 어긋나고 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제 갈 길이 정해진 마당에 ‘제면소’라는 공동체는 저마다에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말에 앞서 제사 모티프가 두드러지게 제시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한 시대의 마감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확인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런 점은 정옥의 장례에 정씨 가족뿐 아니라 제면소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참여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예전에 정씨의 이념적 동조자였던 김씨가 정옥의 장례에 참여한 이후 본격적으로 변모하는 사실에서도 그 의미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실상 서사적 시간축에 등장하는 모든 죽음은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전개되는 하나의 커다란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사가 공동체에게 한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의식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몰락하는 인물들의 죽음은 제사 의식을 통해 이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다.

20) 이는 얼핏 보아 죽음을 회화화하고 죽음을 개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전통적인 제사의식을 떠올릴 때 흥겨움은 단지 슬픔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제사' 모티프를 한 시대의 마감으로만 본다면 사회의 지평을 보여주기 위한 소설적 장치로서 그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 1964, 5년 당시는 4·19로 시민운동의 가능성성이 표출된 반면 이어 5·16으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던 시기였다. 이 시점에서 1950년대를 주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950년대가 이후의 시간과 연결되는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한국 근대 사의 왜곡 양상을 전조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창작이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1950년대를 바라봤을 때 이는 창작 당시 사회적 문제의 기원을 찾는 탐색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작품의 문제의식이 미치는 범위를 1950년대와 1960년대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1950년대는 새로운 가능성이 잉태된 시기이기도 하다. 즉, 신념과 지식으로만 무장한 1950년 이전 세대가 일상이라는 현실 앞에서 몰락하는 모습과 이 과정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계층이 새로운 사회 주도층으로 상승하는 장면을 직접 목도한 1960년대 이후 세대, 작중인물로는 정씨 아들이 바로 여기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상승 구조의 또 다른 쌍으로서 전략-상승 구조를 예견한 이전의 논의는 이 연속성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작품은 한 시대의 통과를 상징하는 제사라는 전통의식을 주요 모티프로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이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과씨의 제사가 희극적으로 그려지는 한편 다음과 같이 엄숙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천에 기운 달이 싸늘한 빛을 안뜰에다 내리붓고 있었다. 어느새 바람이 잣는 지, 구름 한 점 없이 개어 오르고 횃황하게 빙 하늘이 싸늘하게 올려다보였다. 그러나 바람은 잔 것이 아닌 듯하였다. 여전히 높은 하늘에서 바람이 거센 듯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각구름 하나가 급하게 북쪽으로 달아나다가 스르르 녹아 없어졌다. (194면)

과씨 제사가 전반적으로 희극적인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는 달, 구름, 바람 등 자연물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의 축도와 같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과씨의 제사가 단순히 개인의 죽음

이 아닌 공동체적 의미를 지니는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1950년대를 다룬 여타의 다수 작품들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세계관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상과 함께 소시민의 몰락과 상승을 제시하면서도 서사의 주요 지점에 인물의 죽음을 배치하고 그 처리 방식으로 제사라는 공동체 의식을 내세워서서 서사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소시민』의 구성에서 죽음과 ‘제사’ 모티프는 인물과 배경, 사건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작품 전체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사가 지니는 이러한 의미를 상기한다면 『소시민』이 체념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구절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결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 역시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결국 죽은 사람은 그렇게 죽어 갔지만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의 논리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필연적인 코오스를 겪고 있었다. 모두 피어 있는 바닥에서의 피어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 셈이었다. (243면)

대부분 논의들은 “필연적인 코오스”, “피어 있는 바닥” 등 다분히 체념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결말의 구절들에 주목하며 작가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작품의 한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말에 대한 이런 논의들의 문제는 모두 한 가지 근거, 즉 작중화자 ‘나’는 작가 이호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 이 작품은 작가의 실제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작가 자신 대부분 등장인물이 실존인물임을 밝힌 바 있다.<sup>21)</sup> 하지만 작가가 곧 화자라는 믿음은 이러한 언급 이외에 어떤 구체적 근거도 없다. 또한 이 작품에서 관찰자인 ‘나’의 미성숙함이 여러 차례 회화화되고 있다는 점<sup>22)</sup>에서 ‘나’의 시각이 정확히 작가의 시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히려 이 작품의 서술자는 화자 ‘나’의 성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21) 이호철, 「작가의 말」, 『소시민·살』, 문학사상사, 1993.

22) 까닭 없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거나 자기보다 약한 과씨에게 비굴해지는 장면 등이 이에 대한 좋은 보기이다.

수 있다. 즉,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교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 소시민인 ‘나’의 눈을 통해 당대 소시민의 일상을 바라봄으로써 두 시대의 소시민 유형 모두를 비판하고 이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세대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작품의 개작 과정을 살펴본다면 이 역시 작품에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작을 통해 소시민적 인물인 ‘나’는 정씨를 긍정하고 연민하면서도 그의 태도와 김씨의 태도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정옥의 죽음으로 김씨의 생활 태도에 급속히 젖어들면서 ‘나’의 정씨에 대한 태도는 변모한다. 이러한 모습은 개작 후 ‘나’의 현실 순응적 모습과 정씨 아들에 대한 비난과 연결해도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정씨 아들과 같은 이념적 인간형을 전면적으로 긍정하지는 않는다. 작가 스스로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이념에 입각한 지식인의 오만, 주제넘음, 준권력 지향성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보여 왔으며<sup>23)</sup> 이런 점에서 정씨 아들이 지난 이념의 확신은 “말의 힘 언어의 힘 같은 것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 자신이 “『소시민』속의 상황이 이미 부유하면서도 물질하게 썩은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이 속의 주인공이던 ‘나’가 그 썩어 가는 상황에 물들어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상황의 연속한 환도 후의 상황은 ‘진수’, ‘선재’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말려들어서 같이 썩어 가고 상해 가고 있는 것이다.”<sup>24)</sup>라고 밝힌 것처럼 화자 ‘나’와 작가 이호철의 거리를 인정한다면 “‘나’=작가 자신”이라는 시각에서 정씨 아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그 원래의 가능성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분명한 결말을 맺기보다는 열린 결말이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독자에게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새

23) 김윤식, 「성지의식, 체호프, 비트겐슈타인」, 『한국문학』, 2000, 봄.

24) 이호철, 「내 작품의 주인공들」, 『산이 울리는 소리』, 정우사, 1994. 임규찬, 「관문점」, 「소시민」, 그리고 「큰 산」, 이호철, 『소시민—한국소설문학대계 39』, 동아출판사, 1995 재인용.

로운 세대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새로운 세대가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 모티프가 지니는 의미와 연결되어 앞 시대가 가지고 있던 과오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의무는 새로운 세대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작가는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가능성의 차원으로 남겨두고 이를 “필연적인 코오스”라고 표현함으로써 읽는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승옥 등의 1960년대 문학이 보여준 소시민의식이 시민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의 단서이며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속의 방법론”<sup>25)</sup>이라고 긍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 사회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데 치중하였다면 이호철은 전대의 시간과 공간을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소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지니면서도 1950년대 문학의 추상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제사’ 모티프는 열린 결말을 통해 전망을 보여주는 듯하면서도 그 전망을 실천적인 영역으로까지는 이끌지 못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즉, 『소시민』에서 그려지고 있는 소시민들의 모습이란 1960년대에 부정되었어야 할 소시민 근성과 소시민 의식의 혼합된 형태로 이를 ‘제사’ 모티프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미룸으로써 당대 사회에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된 것이다.

## V. 결론

『소시민』은 한국의 근대사에서 문제적 공간인 1951, 2년의 부산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소시민이 등장, 몰락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그 논의의 당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록 역사적으로 1960년대가 앞선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지는 못했지만 1950년대를

---

25) 김주연, 「계승의 문학적 인식」, 280면.

단지 전쟁의 한 무대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이 성장한 지점으로 형상화한 작가의 노력은 소시민 극복의 한 가능성을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다. 특히 작품의 형상화 과정에서 인물의 죽음과 '제사' 모티프를 작품의 인물, 배경, 구성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공동체적 전망을 제시한 점은 작품에 내적 견고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개인의 현실과 사회 현실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배경 설정은 창작과정에 더욱 밀도 있는 고민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지점을 찾아내 이 지점에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고자 하는 작가의 문제 의식이 이후 다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가고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민문학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1960년대 문학의 소시민 의식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를 애매하게 새로운 세대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작가 자신이 뚜렷한 사회적 전망을 지니지 못하고 사회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작품이 세태소설의 범주에 머무르고 만 듯한 아쉬움을 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 8』, 신구문화사, 1966.  
 이호철, 『소시민/심천도』, 새미, 2001.

### 2. 국내논저

- 권영민, 「단협과 열림의 변증법」, 『문학사상』, 1989. 5.  
 김윤식, 「성지의식, 체호프, 비트겐슈타인」, 『한국문학』, 2000, 봄.  
 김주연, 「새시대 문학의 성립」, 『아세아』, 1969. 창간호.  
 김주연, 「계승의 문학적 인식」, 『월간문학』, 1969. 8.  
 김치수, 「백낙청의 「시민문학론」과 문학의 사회참여」, 『세대』, 1969. 12.  
 백낙청,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창작과비평사, 1978.  
 이민호, 『근대독일사회와 소시민층』, 일조각, 1992.  
 이종오 외, 『1950년대 한국사회와 4·19혁명』, 태암, 1991.  
 이호규 외, 『이호철 소설 연구』, 새미, 2001.  
 이호철, 「작가의 말」, 『소시민·살』, 문학사상사, 1993.  
 임규찬, 「판문점」, 「소시민」, 그리고 「큰 산」, 이호철, 『소시민—한국소설문학 대계 39』, 동아출판사, 1995.  
 임재해, 『전통 상례』, 대원사, 1990.  
 정호웅, 「탈향, 그 출발의 소설사적 의미」, 『문학정신』, 1992. 7.  
 정호웅, 『반영과 지향』, 세계사, 1995.  
 천이두, 「목계와 배신—이호철론」, 『문학춘추』, 1965. 2.  
 천이두 외,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